초등 3학년 전원 수영 배운다

광주교육청 추진

광주시내 초등학교 3학년 전원이 수영을 배우게 된다.

광주시교육청은 12일 "동부 교육청 관내 251학급, 서부 교육청 관내 438학급 등 광주시내 초등학교 3학년 전원을 대상으로 수영 체험학습을 실시하기 위해 연간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안순일 교육감이 추진한 역점 사업으로, 동부교육청 관내(동구·북구) 일부 희망학교에서 시행돼 오던 것을 확대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총 3억8천여만원의 예산을 지역교육청에 배부하고 다음 달 말이나 4월 초부터 교육에 들어갈 수 있도록 광주체고, 수창초교, 염주체육관, 학생교육문화회관 등 수영장 보유 기관과 시설 활용, 강사 및 안전요원 확보 방안 등을 협의 중이다.

그러나 수영장 시설이 부족한 데다 학급이나 학교 단위로 버스를 빌려 수영장까지 이동하는 데 드는 비용도 적지 않아 사업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시교육청 계획에 따르면 학생 1명당 1차례에 3시간씩, 1년에 2번 정도의 수영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광주 지역 초등학생용 새 컴퓨터 교과서 개발

광주지역 초등학교에 새 컴퓨터 교과서〈사진〉가 도입된다.

컴퓨터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한 교육부 개정 지침에 따라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교과서를 만든 것은 전국 첫 사례다.

광주시교육청 산하 광주시교육정보원이 개발한 초등학생용 컴퓨터 교과서는 ▲단원 도입 ▲계획하기 ▲해결하기 ▲되돌아보기 ▲기능 익히기 등 단원별로 실생활에서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금값 오르니… 절도 기승

광주·전남 금은방 '주의'

광주·전남 지역 금은방과 주택가에서 귀금속 도난 사건이 잇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12일 나주경찰에 따르면 설날인 지난 7일 오전 8시께 나주시 이창동의 한 금은방에서 진열대에 놓여 있던 금목걸이와 금반지 등 귀금속 2천여만 원어치를 도난당했다.

금은방 주인은 "성묘를 다녀와 보니 가게 방범창이 열려 있고 값비싼 귀금속들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경찰은 금은방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에 찍힌 범행 장면을 토대로 40대 중반의 남성으로 보이는 범인의 행방을 쫓고 있다.

또 설 연휴 첫날인 지난 6일 오전에는 광주 서구 농성동의 한 빈집에 도둑이 들어 금목걸이와 금액세서리 등 100만 원 상당의 귀금속만을 훔쳐 달아났다.

지난 7일 밤과 8일 새벽 사이로 추정되는 시각에도 여수시 학동의 한 금은방에서 귀금속 1억 원어치를 털리기도 했다.

경찰은 천장을 뚫거나 쇠창살을 뜯어내는 침입 방법과 귀금속만을 노리는 수법 등으로 미뤄 전문털이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금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 귀금속을 노리는 절도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것 같다"며 "금은방 뿐만 아니라 귀금속을 보관하고 있는 가정집도 보안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대구지법서 국내 첫 국민참여재판

일반 국민이 재판에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배심원제)이 12일 오후 2시 국내 사법사상 처음으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재판에 앞서 12명의 배심원들이 배심원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매일신문=김태형기자 thkim21@msnet.co.kr

'배심원 잡기' 檢-辯 열변

주부·회사원 등 참여… 日 법무성도 참관

"범행을 도중에 그만뒀고, 피해자를 구호 조치하고 자수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선처돼야 합니다."(변호사)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기 때문에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합니다."(검사)

12일 오후 2시 대구지법 제11호 대법정에서는 국내 사법사상 처음으로 국민이 형사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이 열렸다. 대구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윤종구)의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검사와 변호인은 배심원 앞에서 열띤 설전을 벌였다.

이날 심리 사건의 피고는 교통사고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7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으려다 폭행한 혐의(강도상해)로 구속 기소된 이모(28)씨. 검찰과 변호인 측은 파워포인트와 사진자료 등을 이용해 이날 오전 선정절차를 거쳐 선발된 12명의 배심원을 설득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았다. 배심원단이 비법률가인 점을 감안해 가급적 어려운 법률 용어를 피하려고 애쓰는 모습도 보였다.

배심원들은 3시간여 동안 계속된 공판에서 하나의 진실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양측의 주장과 증인 심문 과정을 경청했다.

이날 쟁점은 피고인의 계획적·우발적 범행 여부와 자수 인정 여부였다.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날 공판은 유·무죄 보다는 형량을 얼마나 줄이냐는 것에 관심이 모아졌다.

검찰은 이씨의 행위가 계획적인 범행이고, 실제로 돈을 빼앗지 않았더라도 강도를 목적으로 찾아가 폭행했다는 것만으로 강도상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돈을 훔치려고 했지만 끝내 범행을 실행하지 않았고,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업고 병원까지 가 구호조치를 한 점 등을 강조했다.

배심원단은 검찰과 변호인·피고인의 최후 진술을 들은 뒤 평의실로 이동해 이씨의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고 형량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앞서 대구지법은 법원이 무작위로 선정한 시민 230여명 가운데 참여를 희망한 86명에서 비공개 선정절차를 통해 배심원(정식 9명·예비 3명) 12명을 선정했다.

이날 배심원단은 남자 6명, 여자 6명으로 구성됐고, 연령별로는 ▲20대가 1명 ▲30대 8명 ▲40대가 3명이었다. 직업별로는 가정주부가 4명으로 가장 많았고 ▲회사원 3명 ▲자영업 2명 ▲일용직·건축업·공사 직원 각 1명씩이었다.

한편, 이날 재판은 국내에서 처음 열린 만큼 일본·미국 등 국내외 취재진과 학계·법조계·시민 등 100여명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고, 일본 법무성은 검사 1명을 파견해 배심원 선정 및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 /매일신문=최두성 기자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장기매매 병역기피 휴학생 수사 의뢰

군 입대를 앞둔 20대 휴학생이 징병검사 과정에서 장기매매에 따른 병역기피자로 의심돼 병무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2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전남 D대학 1년 휴학생 임모(20·북구 용봉동)씨는 지난해 10월께 전북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던 중 군의관이 "신장을 고의로 떼어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장기매매 사실을 실토했다는 것이다.

임씨는 병무청에서 작성한 자술서를 통해 "지난해 2월 초께 광주 종합버스터미널 화장실에서 '신장 2천만 원 매매'라는 광고를 보고 장기밀매 조직에 연락해 신장 하나를 팔았다"며 "군 입대를 앞두고 사채 빚을 갚으려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진술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막바지 추위 기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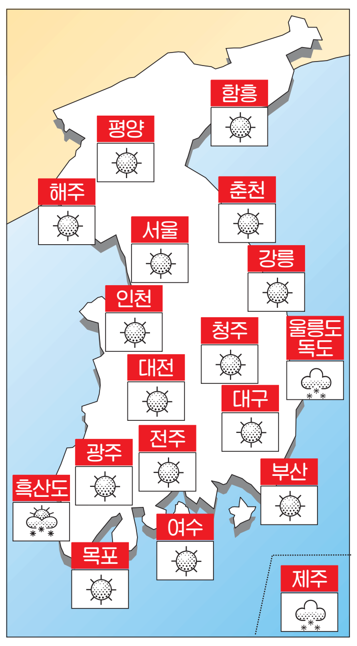
2월 13일 (음 1월 7일)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전남 일부지역에는 눈이 오는 곳도 있겠다.

광 주	구름 조금	-6~1℃
목 포	구름 많음	-4~2℃
여 수	맑음	-6~2℃
완 도	구름 조금	-4~2℃
구 례	구름 조금	-9~1℃
해 남	구름 조금	-6~1℃
장 흥	구름 조금	-6~2℃
고 흥	맑음	-6~3℃
순 천	구름 조금	-9~2℃
영 광	구름 많고 눈 조금	-6~0℃
진 도	구름 많고 눈 조금	-3~2℃
전 주	구름 조금	-9~0℃
남 원	구름 조금	-11~1℃
흑산도	구름 많고 눈 조금	-2~0℃

◇전국날씨



서해남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1.5~4.0m
먼바다=서~북서풍 파고 2.0~4.0m
남해서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1.0~2.5m
먼바다=서~북서풍 파고 2.0~4.0m

목 포 밀물〈06:23 18:23 썰물〈11:29 23:46
여 수 밀물〈00:56 12:56 썰물〈06:52 19:19

▲해뜸 07:22 ▲해짐 18:12 ▲달뜸 10:27 ▲달짐 --:--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4(목)	15(금)	16(토)	17(일)	18(월)	19(화)
날 씨						
최저/최고	-5/5	-3/6	-3/5	-2/6	-3/7	-2/8

급성뇌졸중 치료 시간 획기적 단축

조선대병원 전담팀 운영 성과

조선대병원이 급성뇌졸중 환자의 혈전용해 치료시간 단축을 위해 전담팀을 운영, 큰 성과를 거두었다.

12일 조선대병원 신경과에 따르면 급성뇌졸중 응급환자를 전담하는 '베스트(BEST)팀'을 지난해부터 운영한 결과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혈전용해 치료까지 걸린 시간을 30분가량 줄였다. 혈전용해 치료는 뇌경색 환자의 사망률을 낮추는데 필수적이지만 병원 도착이 늦어지거나 각종 검사 등으로 시간을 허비하면 시술이 불가능하다.

조선대병원은 평균 76분이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응급실, 신경과, 진단검사과 등으로 구성된 급성뇌졸중 환자 전담팀인 베스트 팀을 구성했다. 또한 뇌졸중환자의 경우 모든 진찰·검진 과정이 동시에 각 부서로 전파되는 독자 프로그램을 개발해 치료시간이 평균 48분으로, 28분이나 단축됐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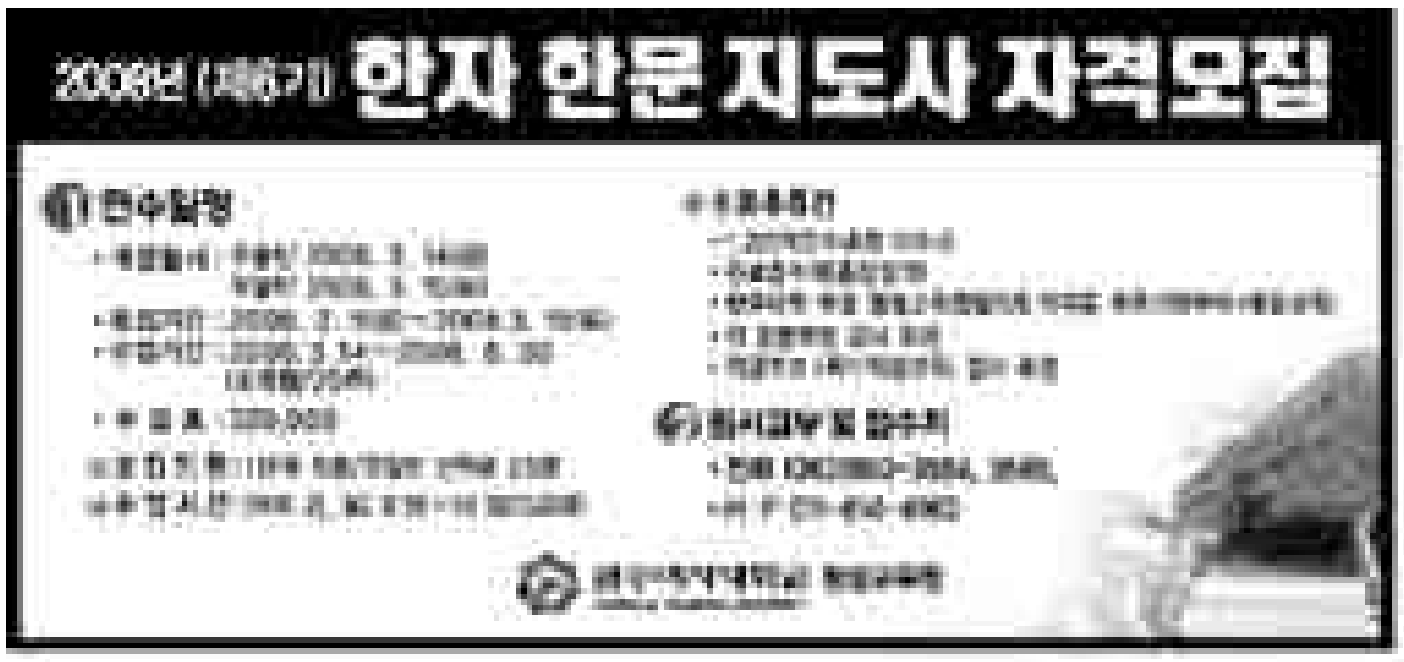
40대 정신장애인 19년만에 '집으로'

광주남부경찰, 유전자 채취 가족 찾아줘

가족과 헤어져 19년동안 전국을 떠돌던 40대 정신지체 1급 장애인이 경찰의 도움으로 가족을 찾았다.

인천에 살고있었던 정신장애인 이모(47)씨가 실종된 것은 지난 1989년. 1년여간 아들을 찾아 헤매던 아버지는 이듬해 화병으로 숨졌다.

이씨가 발견된 것은 18년 후인 지난해 3월. 당시 목포 여객선터미널에서 배회하던 이씨를 김모(52·신안군 신의면)씨가 발견, 1년여간 돌보다 지난 9일 광주시 남구 G복지시설로 보냈다.

광주 남부경찰 여성청소년계는 이씨의 지문과 유전자를 채취하고 호적사항을 열람하는 절차를 거쳐 인천에 살고 있는 가족들을 찾았다. 이씨의 어머니 나모(73)씨는 12일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렵고 찾을 방법이 없어 손 놓고 있었는데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꿈만 같다"며 눈물을 터트렸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